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0월 31일(금) 제 3198호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 안중에도 없나

조국당, 장수군수 하천 사유화 직격 "하천 점용·토지 취득 윤리 붕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고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장수군수가 사저 앞 공공하천을 개인 마당처럼 장기간 사용하고, 취임 후 역점사업 인근 토지를 가족·측근과 공동 취득했다는 보도는 단순 과오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중대한 붕괴다"며 " 허가권자의 '셀프 허가 가능성, 점용·원

상복구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역 민주 주의와 행정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했 다"고 직격했다.

또 "공공하천의 사실상 사유화와 뒤 늦은 점용허가 신청은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위반했고, 현장 확인 직전 불법 시설물을 치웠다는 의혹은 사후 정상 화 꼼수로 비친다"고 전제한 뒤 "메타 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의 가족·측근 공 동 취득은 직무정보 활용 의혹과 개발 이익 연결 가능성이 짙은 전형적 이해 충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다. 이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잃은 일 탈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탈이 전북 정치의 일당독주 구조 속에서 반복되 어 왔다는 점이다"며 "장기 독점은 인 사·감사·의회 견제의 삼중 안전장치를 무력화했고, 같은 편이면 눈감는 문화 가 행정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고 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가 사

라질 때 가장 먼저 부패한다는 것. 조국당은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하천

무단점용의 경위·기간·면적, 변상·과 태료 산정의 적정성, 허가 절차 위반 여 부를 전면 점검할 것, 장수군의 상시적 이해충돌 차단장치 가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수 군수·부군수·정무직 및 관련 부서의 최근 5년 토지·부동산 취 득 전수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자원과 공적 절차의 사유 화다"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 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군산서 도내 첫 검출

만경강 일대 야생조류 항원 확인 반경 10km 예찰·농가 방역 강화

전북도는 지난 27일 군산시 만경강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 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올해 들어 도내에서 처 음 확인된 사례다.

도는 즉시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 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가금농장 에 대해 소독 강화와 이동 제한 등 방 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닭 1호 농가 에는 21일간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

이에 앞서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의 한 소규모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조류인플

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 로 격상했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 도도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금 류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모든 닭·오리 농가 가 출하 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된다. 도는 검출 지역 주변 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한편 출입 통제와 함께 철새 도래지 및 인근 가금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 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1달 늦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 아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 종사자들 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 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도-정치권 혼연일체로 국가예산 결실 창출"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연고 국회의원들이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사진=전북자치도> 증액 확보를 위한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안호영 "새만금호 수질악화…군산항 준설토 활용해야"

안의원,저층오염물질재방출우려 "군산항준설토매립용재검토해야 환경부·해수부·새만금청협의시급"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원회 위원장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 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 하며, "새만금호 준설은 저층 오염물질 을 재방출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인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 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 특히 만경수역의



안호영 의원

산소 농도가 2mg/L 이하, 일부 구간은 1mg/L 수준 까지 떨어져 저산소층이 형성돼 있다" 며 "이는 정

상치에 비해 상당히 심각

한 수질 저하로, 새만금호가 사실상 '썩 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

안 위원장은 "해수 유통 확대도 필요 하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통해 매 립용재를 확보하는 계획은 퇴적층을 뒤흔들어 질소·인 등 오염물질을 재방 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산항과 장항항은 퇴적이 심 해 매년 준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대 부분 바다에 단순 투기되고 있다"며 "이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 하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항만 준설

안 위원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에는 새만금 내부 준설토를 매립용으 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산항 준 설토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반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해수부, 국토부, 새만금청 이 함께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새만금청과 함께 검토하 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워크숍 "365일 현장 중심 안전 강화"

시군별 지표 분석 추진상황 점검 사망사고·위험요인집중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중회의 실에서 도와 14개 시군의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안전지 수 향상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 별 지표 분석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안부가 지자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 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 역량을 5개 등 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5개(특·광역시 도 시군구) 그룹으로 나눠 상대 평가하 고 매년 공표하는 지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확 정한 2025년 산출지표를 공유하고, 주 요 변동 사항이 지역별 안전지수에 미 칠 영향을 진단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위해지표를 낮추 고 주민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반영 한 의식지표를 높이는 전략을 중심으 로 시군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또 지역안전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망사고 등 '위해지표', 위험요인을 가 중시키는 '취약지표'는 낮추고, 위해를

줄이는 '경감지표', 생활습관 및 주민 참여를 반영한 '의식지표'를 높이는 세 부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통계 관리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 업을 통해 안전지수 전반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2025년 3월부터는 지역안 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 실무회의 안전마을 만들기 등 연계사업 추진,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 고 있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이에 대해"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한 통 계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다"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 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 과 함께 현장중심의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전북자치도 지역안전지 수는 6개 분야 중 3개에서 우수 등급을, 2개 분야는 보통(3등급) 등급을 받아, 전국 9개 광역도 중 2번째로 고른 지수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전북, 1조2천억 '인공태양 프로젝트' 새만금 유치 총력

나섰다.

핵융합연구인프라새만금에제안 플라즈마기술집적지 강점 부각 도·정치권한목소리로유치총력 유치시350명고용·산단파급기대

전북도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 지할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본격 나 수도 인입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2027 섰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 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 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단을 제안했다 고 밝혔다.

10년 간 진행되며 핵융합 기술개발에 3,500억 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8,500억 원 등 총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부 설과의 기능 집적화가 용이하다. 지 선정은 11월 말 발표될 계획이다.

들어지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친 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인공 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도 유리하다. 민 간담회 등을 추진해 도민 참여 분위

고, 고준위 방폐물도 발생시키지 않으 며, 폭발 위험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원 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만금은 공모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최소 요구 면적인 50만㎡를 초과하는 단일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왕복 6 차선 진입로가 확보돼 있다. 전기·상하 년 말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착수 시기와도 연동된다.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구축된 각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연구 인프라다.

군산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 시작되길 바란다"며 유치 활동에 진력 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2012년 개소 했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이후 플라즈마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플라즈마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어, 핵융합 연구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 핵융합 기술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 단지와 RE100 산단 등 에너지 관련 연 구기관 및 실증단지가 인접해 연구 성

태양'으로 불린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 도로는 배후도시인 전주와 군산과의 접 근성을 향상시켜, 연구인력 수급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치 성공을 위해

> 이날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는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 슬로 건 아래 유치 성공기원 결의 다짐 행사 를 개최했다.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으 로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 선도할 첨단 연구 인프라가 새만금에서

도는 지난 23일 새만금청, 군산시, 농 어촌공사 등과 함께 유치대응TF 킥오 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 입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 촌공사 등 도내 주요 혁신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산시와 함께 유치기 원 릴레이 피켓 퍼포먼스, 서명운동, 주 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핵융합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연구 시설 건립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 원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만 350명 이상 이며, 전기전자 및 초전도 관련 기업 유 치와 스타트업 입주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유치를 통해 '전북 R&D특 구 트라이앵글'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너지 연구거점(새만금), 농생명 융합 연구거점(전주·완주), 융복합 혁신 연구거점(정읍)을 잇는 첨단 연구 네트 워크를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산업 테스 트베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이 미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위치한 만큼 핵융합연구원의 기능 집적화를 위해서 도 새만금은 매우 유리한 위치"라며 "인 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서 새만금 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군산항 매몰 위기 심각…상시준설해야"

수심확보 난관 항만 경쟁력 저하 "해수부 군산항 예산 확대해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 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매 년 320만㎡인데, 최근 4년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 매몰위기로 상시준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 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안전 한 수심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 형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 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 서 토사량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항 만운영을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 준 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군산항의 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하지만 퇴적량에 비해 준설량이 매우 적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저 하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군 산항 준설예산을 타 항만에 비해 적 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

로 증가했 고, 경인항 은 전년대비 13배로 급 증 했지만,

평택항 25

년도 준설

예산은 전년

대비 2.4배

군산항은 1.3배에 그쳐, 해수부가 군산항을 방

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군산항의 준설량 저하로 24년에 는 전년대비 군산항 물동량 6%감 소, 자동차 물동량 26%감소 등 항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가무역항으로 호남권 산업·물류 의 중심항만인데 해수부가 방치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통항을 위 해 준설예산 확대 및 준설시기, 구 역, 준설량 등 수요조사를 통해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준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道-지역·연고 국회의원 '혼연일체' 예산 증액 총공세

서울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새만금·AI·문화 등 집중 건의 미반영 70대 중점사업 반영 추진

전북도가 3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 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 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한 것이다. 이날 오전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정

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로 나뉘어 진 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관영 지사는 도 정 주요현안과 부처별 건의사업을 공유 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안 9조 4,585억 원 국가계획 반영 등이 제시됐다. 을 확보했다.

의 국회단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 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 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 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 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 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 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 보를 위한 전방위 공조 체제를 본격 가 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구별 핵심사업 이 집중 검토됐다.

전북의 미래 성장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도 함께 다뤄졌 다. 여기에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제 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에서는 국회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 인프라 구축부지 유치 공모 ▲제2중앙 업의 역할분담을 모색했다. 효과적인 반 경찰학교 설립부지 선정 ▲자산운용중 심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주요 SOC

김 지사는 협의회 이후 박주민 국회 그러나 새만금·AI·문화·복지 등 핵심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북권역 통 분야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 합 재활병원 ▲한의임상교육센터 설립 등 국가예산 사업 ▲공공보건의료대학



전북도는 3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전북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시급한 복지 분야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정오에 열린 전북 연고 국회의원 협 의회에서는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거론됐다. 도는 새만금·AI·농생명·문화산업 등 미 래 성장축 중심으로 총 28건의 상임위 한 구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별 증액 건의 사업을 제시했다. 정부안 영과 주요 현안, 입법지원 등도 협의했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전북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단계별 심의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노홍석, 김종 훈 부지사·실국장 역할분담체계를 중심 으로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 면담 활 동을 전개한다. 특히 국회 상주반 운영 과 도-시군-정치권 간 현장 대응 체계 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즉각 대응 가능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회 심의가 마무 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국회단계 반 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의 예산이 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움직이겠다"고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식

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4인 위촉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

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위촉식을 열 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의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부터 2027 구는 도 감사위원회가, 도 자체 행정에 년 10월까지 2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운영 등에 대해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통 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을 맡 고 있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내부위 원 4명과 도의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 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청구가 접수될 경우 ▲감사청구요

건의 적합 여부 ▲감사청구 대상 여부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유 효 여부 등을 심사해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감사 개시가 결 정되면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수행 한다.

도내 시·군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가 담 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심의·의결하 였으며, 이 중 13건을 수리해 감사를 실 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권 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 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지 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 중대재해 감축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열어

익산 원광대서 개최 200여명 참석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공모전 시상

30일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 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택림 전북특별자 전북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치도 도민안전실장, 권현민 전북 안전보 건네트워크 총회장, 공영철 전주고용노 서 '2025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 동지청장을 비롯해 건설·제조·서비스 보건공단 전북본부·서부지사장상 6명 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중 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 낭독 ▲안전보건활동 특강 ▲안전문화 실천 공모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별자치도지사상 6명, 고용노동부 전주・ 익산·군산지청장상 9명, 한국산업안전 등 총 21명이 표창을 받았다.

UCC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 2팀이 전북도지사상과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우수상 4팀이 고용노동부 지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우수 안전보건인 시상에서는 전북특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내 사 업장들이 추진 중인 우수 안전관리 사 례를 공유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

/김은지 기자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 즉각 중단하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이주노동자단속중단성명서발표

지난 28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 위 안타까움을 이어졌다. 크(준)은 정부를 상대로 이주노동자 합 동단속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는 최근 대구 성서공단 내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25세, 여성)가 대구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건 물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

이번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은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 분으로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하며 발생됐다.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대구 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으로 취업을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로 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 는 "이번 비극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폭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 력적 단속 위주 정책과 졸업 유학생에 대 한 잘못된 취업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로 적시했다.

> 특히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는 "현제 정부는 이주노동자 합동단 속을 통해 안전조치 없는 범죄자 취급 수 준의 폭력적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단체는 이어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며 힘들게 획득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

전북지역 이주노동자 실태로ㄴ "전북 준비하던 차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지역에 유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유학 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은 너무나 흔한 일"로 단정 지었다.

> 이주노동자들은 "유학생의 경우 대학 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졸업 후 구직 비자(D-10)로 시간제 아르 바이트나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한정하고 있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어 려움을 호소했다.

하려다 숨진 충격적인 사건은 전북의 어 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의 성명서에는 △현 정 부는 아펙을 빙자한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즉각 중

단하라 △유학생 졸업 후 D-10(구직) 비 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건을 개정하고 노 동권을 보장하라 △단속 과정과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주노 동자에 대한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체류 권을 보장하는 합법화 정책으로 전환하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 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더불 어사는 좋은이웃,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 합, 성요셉노동자의집, 전북중국인협회, 단체는 "25세 젊은 생명이 단속을 피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사단법인아 시아이주여성센터, 금속노조 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단법인 착한벗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 전북지부 등이 모여져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동물원, 주차 요금 500원 인상

요금 1000원→1500원 인상

전주동물원 주차 요금이 15년 만 에 15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원 운영시간(오전 9시~ 오후 6시) 이외 시간에는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특히 시는 "동물원 주차장 요금 인상은 시설 유지관리비 상승과 주차 환경 개선 위한 불가피한 조 치"라고 밝혔다.

25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될 예 정이다.

시는 요금 인상분을 주차장 내 노후 포장 및 진입로 개선 등 쾌적 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 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간 산책이나 인근 체련공원 이용객 등 시민들의 주 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

화재안전공

상구 개방상태 유지 △시험감독관 등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피난 장

소방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

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된 부분은 학교 측에 보완을 권 고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

능)은 오는 11월 13일 완산구 관내 14

/정소민 기자

개 수능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애요인 사전 제거 등이다.

이어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8년 연속 선정

국비 10억3000만원 확보

전주시가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시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8년 연속으로 선정됐 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다.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 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

사업 대상 지역은 완산구로 시는 주택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용 태양광 284개소(1,116kw)와 태양열 10개소(136㎡), 지열 22개소(385kw) 등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3,153MWh의 에

너지를 절감하고 270.25toe 화석에너지

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751가구가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 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자 립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소민 기자

전주시, 혁신도시 악취 개선 … 주민들과 머리 맞대

30일 주민간담회 개최

전주시는 30일 혁신동 주민센터에서 혁신도시 악취 저감 주민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추진 된 악취저감사업 추진 사항을 주민들과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악취모 를 연계하는 등 악취발생시 대응체계를

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혁신도시 악취의 신 속한 대응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악 취모니터단의 운영 실적과 유관기관과 다. 의 악취 저감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악 취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설명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 과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적극적인 단속 등을 건의하기도 했

시는 앞으로도 악취모니터링단의 활동 과 무인악취포집기에서 수집된 데이터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 니터요원들은 그간의 활동 소감을 공유 한층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군과 협업해 다양한 악취저감사업들 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악취저감 정책을 더 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 청년 1인가구 주거 정책 방향 제시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 발간 주거 수요 분석·정책 제언

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 와 수요 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은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가 임차 가구인 것을 확인했다. 수요 분석 및 정책 제언' 주제로 '2022

세-39세)을 중심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중점으로 심층 인터뷰(20인)를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 진행해 전주시 최초 수요기반형 주거정 책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주시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18세~29 세 청년의 96.2%, 30~39세 청년의 87.7%

이들은 공과금과 관리비 등 간접적인 주 거비 지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54.9%로 매우 높은 반면, 실제 입주율은 3.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 간극이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청년 월세가구 44.8%, 30대 청년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중 청년층(18 9.2%는 주거비 부담 과도로 분석했으며, △단기 임대주택 공급 △동네 안전 강화

△주거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총 11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청년 주거 실태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조사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35 세 이상 청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양 질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한 주거복지 정 책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의 자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 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 (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체계 구축

전주완산소방서 '수능시험장 화재안전조사 전담반' 운영

외국인 환자의료 접근성 지원 강화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된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화재안전조사

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

다. 이번 긴급 조사는 지난 10월 17일

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3주간 진행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작동

상태 및 관리기록 확인 △출입구·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외국인 환자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손잡고 다국어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3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 께 추진하기로 했다. 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전 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내 공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다문화 환자 통역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 가고 있다.

전북대병원 국제진료센터가 주관 한 이번 협약은 외국인 환자 지원 강 화 사업의 일환아다.

아울러 도내 외국인 환자 및 이주민 이 언어 장벽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병원과 두 기관은 △외국인 환자·이주민 대상 다국어 유선 통역서비스 연계 △의료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외국인 진료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 △외국인 지원 매뉴얼 및 다국어 안내 콘텐츠 개발 △기관 간 홍보 및 교류 확대 등을 함

협약식에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 해 병원 관계자와 두 기관 관계자들 이 참석해, 도내 국제의료 기반 강화 와 다문화 포용 의료환경 조성에 뜻 을 모았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국어 의료안내 콘텐츠 제작 △의 료진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공 공의료사업 연계 등 외국인 환자 지 원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단계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1106필지 (완산구 579, 덕진구 527)에 대한 개별공 정됐다. 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 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11월 28 수시분으로 나눠 정해진다.

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전주시 부동산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 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 결정·공시하는 정기분과 1월 1일부터 6 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 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 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일까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는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 에도 사용된다. 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이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 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2 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 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정소민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체험 교육 실시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범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립 73주년을 맞아 체험형 학습 안보현장 체험 교 육을 실시했다. 안보현장체험교육은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우수학생 40명 을 선발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지 원을 받아 진행됐다.

금번 행사는 육군본부 나라사랑 계

룡대 견학, 대전 현충원 참배 및 보훈 미래관 견학, 백제군사박물관 등 군 문화와 안보체험을 통해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확고한 국가 관 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 행사 를 다음과 같이 실시해 다시한번 재 향군인회의 뜨거운 위상을 드높였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제1금고 '전북은행' 결정

'제1금고' 전북은행 '제2금고' 농협은행 심의 의결

전주시 제1금고 은행에 전북은행, 제2 금고 은행에 농협은행으로 각각 결정됐 다.

지난 28일 전주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 위원이 참여했다.

회를 개최해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이 제 출한 제안서를 심의·의결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에는 공인회 계사와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금융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전주시 공 무원 2명, 전주시의원 2명 등 총 10명의

이들은 이날 금융기관 제안 설명 등 질 의응답 과정을 거치며 공정하고 객관적 인 심사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이 1금고에 선정됐 으며 앞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 계를 맡아 2025년 본예산 기준 2조6623 억여원을 취급하게 됐다.

2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기타특별 일까지 3년간이다. 회계와 기금을 맡아 1414억여원 규모 예

산액을 취급하게 됐다.

시는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 시보 및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공고 절차를 거쳐 필요 제반 사항을 협의한 뒤, 이달 안에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 결할 예정이다. 차기 금고 약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스마트공장 450개사 구축 지원

제조분야 AI 대전환 위한 2026년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사업통합공고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 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 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 부는 '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 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오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실현 하기 위한 내년도 지원사업의 추진일 정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총 12개 사업으로서, 올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출, 실시간 공정 제어 등 의사결정과

실행이 자율화되는 'AI 공장' 구축 지 원이 단계별로 크게 늘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율형공장(30개)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400개) △대 중소 상생형 AI트랙(20개) 등에서 450 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를 활용한 AI전환(AX) 기획지 원 등 컨설팅도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 조AI 도입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완화 등 업종 별 중소기업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10월 24일 국 있는 AI 솔루션·장비를 개발해 확산하 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프 로그램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외 AI, 디지털 전환 기술, 핵심공 정 최적화 등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기 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 개발 성과물이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 트랙도 신설 할 예정이다.

스마트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과 노동강도가 높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해 불량 검 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지원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오늘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 제 조기업이 AI의 효용성을 보다 느끼고 제조현장에 AI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 록 내년도 관련 예산(정부안 기준)을 80% 이상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할 수 있다.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제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 mss.go.kr)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 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확인

/정혜민 기자

전기안전공사-소비자원, '소비자 위험 사례' 공유

2017년 협약 세부 과제 사고 예방 캠페인 등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한 다. 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와 전기안전 분야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부속합 의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2017년 양 기관이 맺은 '전기 안전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세부 추진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

체결된 부속합의는 전기안전분야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 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 응하고, 사전예방 위한 공동 캠페인 등 을 추진하는 세부 사업을 포함한다.

양 기관은 부속합의에 따라 △전기안

전 분야 위해·결함정보, 사고정보를 상 호 교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해 사항의 분석결과 공유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구체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전기제 품 화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 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 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 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소비자원 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속 전기안 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 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과 전기안전분야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부속합의를 체 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혜민 기자

검역본부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구축

11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 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 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 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 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 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돼 약 7 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 입 시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 로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PICD)'을 구축했다.

>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 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 능 조회시스템(PICD)'은 △검역본부 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 별(수입준비, 수입검역), 검역 분야별 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 (수입, 수출, 소독 등) 등으로 개편해 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고, '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수입식물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식물류 수

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 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다. 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 시범운행 시작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

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 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 또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 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 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앞 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맛도 가격도 감탄! 감탄한우

전북농협, 한우먹는 날 맞이 한우 할인행사

최대 40%까지 할인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한우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먹는 날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1 월 2일까지 '2025 소프라이즈 대한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소비자에게 련됐다.

한우세일에는 전북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축산물판매장 34개 소가 참여한다.

가 높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 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 급 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

지만 등급에 따라 등심 최대 30%, 불고기・국거리를 최대 40%까지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축산물 판매장(하나로마트)에서 한우자조 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 금과 함께 진행하는 본 행사는 시 장상황 등의 여건을 감안해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참여매장은 농협경제지주(nhabgroup.com)와 한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 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에 서 확인 가능하다.

이정환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여 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농가의 정성 과 땀으로 길러진 안전하고 맛있는 할인행사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 한우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 원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해 나아 가겠다"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전북신협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 실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 로서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금융지 연수)는 전주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 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회복 의 금융 뿌리로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목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표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고 상생과 나눔의 금융을 실천하겠다' 전북신협 임직원이 참석해 △소상공 고말했다. 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지역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금융취약계층 복 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협이 지역경 제의 근간을 지키는 금융협동조합으

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와 금융기관이 함께 민생 고 밝혔다.

강연수 본부장은 "신협은 지역사회 전주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

전주시와 전북신협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경제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aT, 할랄 한우 UAE 첫 정식 수출

한우수출 거버넌스 노력 결실…할랄 장벽 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 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대표이사 안병우)와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첫 정식 수출 을 기념하는 '할랄 한우 공동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농식품부, aT, 농협경제 지주 축산경제, 합천축협, 상주축협, 강 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 인 ㈜토바우 등 수출업체와 할랄 인증 수출 작업장인 ㈜횡성케이씨 등이 참 석했다. 현지에서는 향후 진행될 2건의 수출 계약도 체결됐다.

출을 위해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 을 추진하고,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과 실사 대응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

우수출조합협의회·할랄 도축장 등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신시장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우 수출 거버넌 스를 확립하고 두바이에 민관협력센터

수출 준비에 나섰다.

와 함께 '할랄 한우 런칭행사'를 열고, aT는 2022년부터 중동 시장 한우 수 UAE 정부·대사관 관계자·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한우의 맛과 품질을 선보였다.

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과 협력 간담 고 말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농협경제지주·한 회'를 개최해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을 위한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9월 11일 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를 설립·지원해 생산부터 판로와 마케 UAE 정부로부터 할랄 한우 수출 작업

팅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며 본격적인 장이 최종 등록되며 수출길이 열렸고, 6월 수출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매칭 6월 UAE 아부다비에서 최현석 셰프 된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거래가 성사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할랄 한우 수출은 농식품부와 aT를 중심으로 생 산자, 도축장, 수출업체가 함께 힘을 모 이어 9월에는 민·관·공이 참여한 '한 이 이뤄낸 신시장 진출의 성공사례"라

> 이어 "앞으로도 한우 못지않은 다양 한 프리미엄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대한민국 식품영토를 지

/정혜민 기자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 개최

지역 발전·성장 생태계 구축 통해 입주사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 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 소벤처기업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

크숍'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워크숍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심 지역 발전과 성장 생태계 구축' 주제로 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모범 사례로 △우수조합(여수식품가공사업협동조 평가받고 있다. 합) 견학 △우수 조합원사 ㈜코인즈(여 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 방문 등으로 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악취물질을 포 를 해결하고, 공동사업장 시설 개선을 다.

례를 공유했다.

여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 명환)의 우수 조합원사인 ㈜코인즈는 여수시와 40억원 규모 신규 공장 증설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시민 우선 채용 과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은 "지자체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중 구성돼 中企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모 소기업협동조합의 매출 및 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경 여수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제로 환류될 때 진정한 상생이 완성된 김갑온)은 여수 오천산업단지 내 공동 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 한 관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집·처리함으로써 인근 마을 악취 문제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 /정혜민 기자

5

교육감 예비후보들 '본격 정책 대결'

제5회 전북교육포럼 김윤태·유성동·이경한 황호진 등 주제토론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30일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종홀에서 열린 '제5회 진짜민주진보 교육포럼'에 내년 전북교육감 출마 행보를 보이는 예비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 사에서 높은 표를 받고 있는 김윤태 우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이남호 전 전

포럼 표지에는 '반천연대(反天連帶)' 라는 문구와 '교권 수호와 학력 신장을 위해 불합리한 교육 제도에 맞서는 연 합체'라는 문장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의 천호성 교수를 저격했다.

포럼은 한국노총전북본부와, 전북교 사노조, 전북교육청노조, 전북교총, 전 국학력신장협의회,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 전북학생의원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고, 전북교사노 조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전북미래교육 신문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는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주소: 너무 작은 학교의 통합과 그 활 용방안'을 주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윤태 부총장의 '지역의 학력 격 차 해소 방안'과 황호진 전 부교육감의 '예측이 어려운 미래시대를 대비한 대안 교육의 방안은?' 유성동 대표의 '지역 공 공교육인프라조성&학교통폐합 방향성 모색'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포럼에 참여한 교육계 전문가는 "내년

교사노조 위원장은 "진짜 민주진보 교육 으로 전북교육의 학력 신장과 100년 미 래교육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 고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수업혁신 축제 개막

11월 1일까지 열려…교원 154개팀 수업사례 시연

교사가 기획하고 주도하며 성장 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수업나눔의 장이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부 터 내달 1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 나래 시청각실 및 전주우림중학교 에서 '2025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 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수업愛 빠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교사들이 주도 적으로 수업혁신 문화를 만들어가 며, 깊이 있는 학습 수업사례 나눔 으로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수업박람회는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념기 반 탐구수업 $\triangle AI \cdot 디지털 활용 <math>\triangle$ 생태·지역 연계 △학력 신장 △교

특히 11월 1일 전주우림중에서 진행되는 '수업나눔의 날'에는 도 내 유·초·중·고 교원 154팀이 참

생, 지역이 함께 배우는 교육공동 체 모두가 성장·발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는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대항마로 거 론되는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여론조 석대 대외협력 부총장, 유성동 좋은교 육시민연대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

북대총장은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본격 적인 정책 대결을 펼쳤다"며 "이 포럼은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한 후보자들이 연 합해 강력한 후보인 천호성 교수를 저격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포럼을 총괄한 정재석 전북

사 성장 등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 시한다.

여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혁신 수업사례를 직접 시연한다. 또한 수석교사 컨설팅, 사제동행 공개수업, 교사 연구회 및 학생 동 아리 부스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

전북교육청은 이번 박람회가 교 사 간 수업 공유와 성찰의 문화를 확산하고, 교원의 자발적 연구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 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 원칙 집행해야"

전북유아교육연대, 국감서 폭언한문정복의원규탄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문정복 국회의 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과 관 련해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국감 스타가 되고 싶어서 폭언을 했다"며 강력하게 비다. 판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전북국공립 유치원연합회,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로 구성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30일 전 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 정과 관련한 문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전북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연대는 앞서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문 의원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어 시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교 육청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

이날 기자회견에서 17년차 공립유치원 교사는 자유발언을 통해 "공립유치원은 '놀고만 오는 곳'이라는 오해 속에 낙후된 시설, 통학차량, 방학 중 급식문제 등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공 식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해 현장의 혼란 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호통은 문 의원 이 국감 스타가 되고 싶어 폭언을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오 회장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공립과 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과 혜 택이 적용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회계 감사가 미비한 상황

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신 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투명한 회계 운영이 선행돼야 진정한 무상교육이 가 능하다"고 말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Δ 문 의 원의 사실 왜곡 발언 철회 및 공개 사과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적 예산 집행 등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연대 관계자는 "유아교육은 특정 단체 의 이익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전북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유치원 원장, 학부모의 의견 을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에너지 기술공유대학 세미나 성료

산학연관전문가등 140여 명참여

전주대학교는 30일 군산 새만금에너 어졌다. 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력전 자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에너지 기술공유대학(ETU) 학술세미나 및 창업 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 는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권 에너지기술공 다. 유대학(ETU),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RE100에너지솔루션얼라이언스, 전북테 크노파크가 공농으로 수죄했으며, 현상 과 온라인을 통해 약 140명의 호남권 산 텍 등 지역기업, 전주대·전북대·군산대· 학연관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했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세 이기태 대 표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 단장의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 육

성정책' 및 한국전기연구원 김태진 박사 의 '새만금 국가종합실증단지' 강연이 이

이어, 목포해양대(이광운)·순천대(김 상일)의 전류측정 오차 보상을 비롯한 3 건의 주제, 전북대(임천용 외 4)의 빠른 반도체 공정을 위한 가변 캐퍼시터 회로 등을 비롯한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

마지막으로, Poster 발표는 한국전기연 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 술연구원 능 국내 국잭연구기관, ㈜비니 원광대 등 도대 대학과 전남대 등 광주 전남지역 대학, 메사추세츠 대학 등 해 오전 세션에서는 에너지공유대학 참 외대학 등에서 27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 었으며, 포스터 발표에는 85명의 국내외 학생연구원과 교수 등이 참여하며 성황 리에 마무리됐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수능 담당자 집중 연수 기간' 운영

'2026학년도수능업무 처리지침' 등 상세히 안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3일 도내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 서치러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 청이 안정적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 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고, 업무 담당자별 연수들 개죄해 수요 내용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4일에는 도교육청 파견감독관 연 수를 진행한다. 총 66명의 파견감독관을 대상으로 △시험장 점검 △감독관 예비 소집 관리 △수능 당일 시험 운영 감독 등 핵심 역할 및 임무 수행 지침을 전달

6일 오전에는 방송담당자 전문 연수가 육지원청별 지정 장소에서 오전 10시부

'수능 담당자 집중 연수 기간'으로 정하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업무처리지침 터 진행된다. 전달 회의를 갖고 △시험장 설치 및 운영 의 각종 준수사항 △감독관 유의사항 △ 부정행위 방지 대책 세부 내용 △상황별 시나리오 등 '2026학년도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어 7일에는 수험생 예비소집을 위한 안내 회의가 마 련된다. 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이 주관 하며, 고등학교 진학 부장을 대상으로 교

모든 시험장에서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수 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능을 성공 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수험생은 수능 당일에 실수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 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아름다운 가을 산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쓰레기는 확실히 처리하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

자연그대로 보전하기!

산행중 아름다운 자연에 홀려



꽃을 꺾거나, 에쁜돌 챙기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존중 하기

등산 중 마주친 야생 동물은



위협하거나, 해치지 말아 주세요.

군산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

군산시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표와 함께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 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 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 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제 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제 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27년에는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 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리 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 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안전한 귀가 서비스 시민 참여 문제 발굴·해결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귀가 환 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 '익산안심이 앱' 운영에 앞서 30일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참여단 25명이 참석 해 발대식에 이어 안심이앱과 리빙랩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향후 참여 방 향을 공유했다.

리빙랩은 행정 중심의 기존 정책 추진 방 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문제 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 책 모델이다.

'익산안심이앱'은 앱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사업이다. 익산시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 진 중인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 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한 귀갓길 경로 를 이탈하거나 도착예정 시간 경과, 도움 (SOS) 요정 능 발생 시 현재 위치가 폐쇄회 로(CC)TV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전 송된다. 상황에 따라 경찰·소방과도 연계 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군산새만금항 이·통장 60여 명 대상 현장교육

군산시는 30일, 군산항과 새만금항신항 일원에서 관내 이·통장 60여 명을 대상으 로 '2025년 군산새만금항 현장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 한된 항만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항만의 중 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새만금항신항 2개 선석이 내년에 개항 예 정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체감하기 위해 마 련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군산항 외항관리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로부터 군산항 의 역사와 기능,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설명 을 들어 이해력을 높였다.

이후 컨테이너부두, 양곡부두, 자동차부 두 등 주요 부두시설을 둘러보며 항만 운 영 현황과 하역작업 과정을 직접 확인했

다음으로 새만금33센터로 이동한 일행 은 무녀도, 신시도, 비안도 등 군산시의 6 개 유인 도서로 둘러싸여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항신항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과 새만금항신항 공사 관계자로부터 신항 건설현황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신항 현장을 경 유하면서 현장교육을 마무리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신항 관할권 확보와 지역 발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전북도 청년몰 중 '매출 1위'

지난해 대비 58.4% 성장 '상상포차'로자립운영 청년 도전 전폭적 지원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성 장세를 이뤄낸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이 자립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시는 익산 청년몰이 올해 1~8월 기준 월평균 922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북 도 청년몰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30 일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운영에 어 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익산은 같은 기간 지난해 582만 원 대비 올해 922만 원으로 58.4% 성장하며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의 성장은 행정 과 현장이 함께 이뤄낸 결과다. 시는 청 년몰 활성화사업, 슬기로운 동네생활사 업, 다이로움 정책지원금 추가 10% 지 급, 다이로움·뉴딜 일자리 연계 등 전폭 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야시장 등 방문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뉴를 비롯 한 점포별 컨설팅 제공과 청소·방역·화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성장세를 이뤄낸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이 자립 운영이 <사진=익산시> 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재점검 등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홍보 강화를 위해 시 공식 누 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 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이로움・ 뉴딜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 SNS 관리와 콘텐츠 제작 등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매 출 회복을 이끌었다.

이 같은 시의 지원 기반 위에 익산 청 년몰은 이달 3일부터 '상상포차' 운영을 시작하며 자립형 청년몰 전환을 위한 시

도에 나섰다.

상상포차는 상인들이 직접 기획·운 영·홍보를 맡아 행사를 추진하고, 판매 까지 책임진다. 시는 질서 · 안전 · 홍보 등 필수 공공 기능만 지원해 청년 상인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순항'

총사업비 365억원 투입 바이오·청년창업 허브로

정읍시가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입 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소벤처 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으며 10월 중 중앙투 자심사 등 주요 사전 절차를 모두 마쳤 다. 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인 건 립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바이오와 청년창업을 키워드로 60실 이내 기업입주공간인 지식산업센

터 건립과 함께,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의 3대 정부출연기관·미생물센터의 바이 오산업 기술사업화 지원기능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을 적극 유치해 농축산바이오는 물론 의료바이 오까지 아우르는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육성기반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시작, 2029년 완공·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이와 함께 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입 주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해 가고 있다.

초기·1인 창업단계의 기업입주를 위

한 연구기관 보육동·전문투자사(AC·VC) 중심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 의 성장에 따른 입주공간인 지식산업센 터와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공장), 성숙단계의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 을 종합적으로 계획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향후 산업단지 확장으로 초기창업부터 기업성장을 위한 단계별 입주공간을 확 보하겠다"며 "기업의 입주애로 해소와 기 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 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성황'

쌍방향 소통 통한 상생 협력방안 모색

군산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 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인들과의 긴밀한 소 통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상인이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 게 질문하고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 는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와 배달 의명수 관련된 궁금한 사안들을 연이 어 질문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나운동 상 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군산시의 🛮 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 향후 추진사업 반영 여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 모두 다양한 궁금증 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장의 목소리 했다.

진정한 시민중심행정."이라며, "상인 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지역명소 '자리매김'

내장산 문화광장 방문객 전년 대비 17% '껑충'

지난 9월 1일 새롭게 문을 연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가 개장 약 3달 만에 지 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가 방문 객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이 다. 터가 위치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방 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간 평균과 비교한 결과, 거주지를 불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개장 전후 약 3달간의 방 주양육층의 방문이 압도적으로 증가했 다"고 밝혔다.

문객 통신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 다. 이는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주민뿐 됐다. 시간대별 방문객 분석 결과, 평일 는 약 7000명 이상 방문객이 증가한 것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 용객이 집중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로 단장한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 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고 10대 이하 주이용층과 30~40대

만 아니라 전주, 광주, 익산, 군산 등 외 에는 일평균 약 2000명, 주말·공휴일에 지인들도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이학수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새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방문 추이를 주 해 방문객 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 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양파 수급 안정 기반 마련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선정

익산시가 양파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 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파, 배추, 마늘 등 노지채소 중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의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다.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조절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과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시는 익산원예농협과 용동면 용 성리 일원 1만 5,791㎡ 부지에 총 면적 4,602㎡ 규모의 시설을 구축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온

저장고(3,360㎡), 예냉시설(242㎡), 전처리 시설(175㎡) 등이 들어선 다.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시설 이 완공되면 연간 5,000톤 이상의 양파를 저장·출하 조절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유통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출하조절시설이 가동되면 양파의 저장・관리가 체계화돼 수 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 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출하조 절시설 구축은 양파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 한 전환점"이라며 "양파 주산지로 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형 도시 혁신 구상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보고회

군산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스 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를 개최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 민 중심형 도시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사람과 공간, 시간이

조화되는 스마트 군산!'이라는 비전으 로 △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신, 모두에게 열린 포용적 도시 △첨단 기 술과 녹색 환경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근대문화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의 시간 △데이터와 스토리를 하나로 잇 는, 지속가능한 군산의 스마트 생태계

등 4가지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발표됐 다.

이 자리에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 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 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술 도입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시민 참여를 통 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의 중요성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 마련 을 강조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시 미래상을 반영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 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 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 익산에 모인다

익산에서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 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룬다.

익산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9일까 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2025 익산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 (BWF)이 승인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가 주최,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 회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시민과 배드민턴 팬들을 위한 국가대 표 사인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 남자복식 세 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 선수가 팬 사인회에 참여한다.

계랭킹 3위 공희용 선수, 오후 2시에 는 남자복식 세계랭킹 23위 강민혁· 기동주 선수, 여자복식 세계랭킹 22위



11월 8일 오후 2시에는 여자단식 세 정나은 이연우 선수가 팬들과 만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세계 배드민 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대회 를 통해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이 이어 9일 오후 1시에는 여자복식 세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 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지황, 미국에 1억7천여만원 수출 성과

정읍시가 대표 농특산물인 지황의 수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 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레스(LA)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 사업의 일환이다. 협약(MOU)을 체결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황 가공상품 수출을 추진 핑월드, 제일녹용건재, 한남체인 등 미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다. 수출 품목에는 정읍지황을 원료 로 한 지황차,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미스낵을 비롯해 정읍쌍화차, 쌍화 시리얼, 쌍화누룽지 등 가공상품 10여 종이 포함됐다.

제에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 영하며 다양한 정읍지황 가공상품을 선보였다. 정읍지황은 현지 소비자들 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 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 읍지황의 국외 판촉홍보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8일과 20일, 홈쇼 국 내 주요 유통업체와 체결했다. 이는 이번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 정읍지황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의 글 로벌 유통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 음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는 정읍 쌍화차, 쌍화누룽지, 쌍화스낵, 숙지황 차·건지황차 등 다양한 가공상품의 미 또한 시는 이번에 개최된 LA 한인축 국 현지 판매와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한인 최대 소 비권역인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갈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타임스

10,782건 일자리 연계 농촌고령화·일손부족 문제 대응 추진 '호응'

부안군이 운영하는 부안군일자리센 터는 올해 추진한 농가 일자리 지원사 업이 예산 전액을 소진하고 목표 실적 을 조기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올해 농가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10,782건의 일자리 연계가 이뤄졌으며, 농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 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농가 에는 중식비 및 간식비를, 구직자에게 는 교통비와 산업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근로 환경을 개선한 것이 특징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여름 철에도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안군일자리 센터는 폭염 대비 물품을 제공하고, 현 장 중심의 혹서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부안군일자리센터는 이번 성과를 토 대로 2026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와 구

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하고,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 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연곤 부안군일자리센터장은 "지난 2년간 농가 일자리사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활력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구인 자와 구직자를 잇는 일자리 거버넌스 를 구축해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부안형 지역경 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서 2단계 상향된 '나'등급을 획득 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 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 받아 지난 5월 노력도 우수기관으 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

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년(2023년) 평가결과 '라'등급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은 군민 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만 관, 전국 지자체, 교육청 등 총 307 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 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군은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 /고창=백종규 기자

다"고 말했다.

상하기도 했다.

고창모양성제, 연일 관람객 발길 '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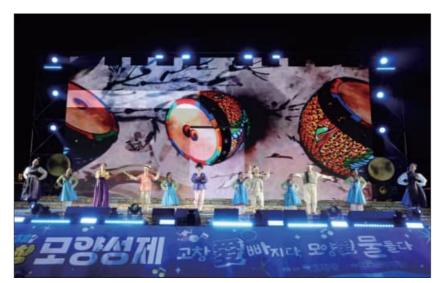
젊은세대 방문이어져 "완성형 축제 마무리 최선"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를 슬 로건으로 한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관 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전 통예술체험마을, 꽃정원, 그린마루까지 축제 공간을 확장해 관람 동선을 다채롭 게 구성했다.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운 영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머물고 즐기는 축제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답성놀이, QR탐험대 '사랑愛 빠 진 모양', 답성놀이 릴스 챌린지 등 참여 형 콘텐츠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젊은 세대의 방문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지역 상인들이 참여한 먹거리 부 스와 플리마켓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으며, 패밀리존·힐링쉼터 운 영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창군>

풍경이 어우러져 머물고 싶은 축제"라 며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제 중반을 지나 다"고 밝혔다.

면서 방문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관람객들은 "고창읍성의 역사와 기을 다"며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운영으로 올해 모양성제가 진정한 '완성형 축제' 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는 지구별로 청하면 갈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후 5등급(가 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6천만원 확보 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

고창군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

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

동 주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

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

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마)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1월 3 일부터 6일까지 각 사업지구별 행정 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서 2026년 지 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 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 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 △청하면 신창연봉지구 △성덕 면 석동지구 △성덕면 상리도하지구 △금구면 어전지구 △순동 농원지구 등 총 6개 지구 2,208필지(920천㎡)

산·신창연봉지구(11월 3일), 성덕면 석동·상리도하지구(11월 4일), 순동 농원지구(11월 6일)는 각 행정복지센 터에서, 금구면 어전지구(11월 5일)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 어전마을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 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 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재조사사 업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 2026년 사업대상지는 △청하면 갈산 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 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 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함께 혁신, 함께 성공 로운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제15회 부안가을愛국화 전시회' 막 올려

11월 9일까지 해뜰마루 정원 자연마당서 개최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은 가을 정취가 한창 무르익는 11월, 해뜰 마루 정원에 위치한 자연마당에서 제 15회 2025부안가을愛 국화전시회를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9 일까지 10일간 깊어가는 가을, 국화의 향연이란 슬로건 아래 국화향 가득 담은 정원으로 꾸며진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부 안군농업기술센터와 국화울타리가 함 께 준비했으며, 국화분재, 조형작품등, 약 2만여 본의 국화가 전시되며, 가을 정 취를 흠뻑담은 팝페라 공연과 다양한 포 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낭 만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조경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은 가을 정취가 한창 무르익는 11월, 해뜰마루 정원에 위치한 자연 마당에서 제15회 2025부안가을 중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많은 분들 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계자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기자

수 판매 및 지역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는 국화를 통해 부안을 찾는 방문객들에 이 방문해 부안의 가을을 함께 즐기시

"새만금시대출발점"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78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것으로 기대된다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 분 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지적과 토지 제'를 운영한다. 관리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첫 개별공시지가 공시

특히 이번 공시에서는 새만금 동서 도로 158필지의 첫 개별공시지가가 결 정·공시돼 새만금 개발의 실질적 시작 을 알리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됐다.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동서도로는 향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후 새만금 지역의 행정적 기반 구축과 개발 추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대를 여는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앞

아울러 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 공 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 신청기간 동안'전문 감정평가사 상담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표준

www.realtyprice.kr)를 통해 ㎡당가격 지,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김 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상담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동서도로 첫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새만금 시 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만 금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 김제시로 나 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 >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기여 인정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수상

고창군 고창전통시장이 '2025년 전 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분야 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정읍 아우름캠 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퍼스에서 '2025년 전북 전통시장 상 인 워크숍'을 겸해 열렸다. 이번 포상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의 전통시 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 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공로

를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창전통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밝혔다. 59개 전통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과 상인회가 협력해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셔 틀버스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 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 업, 안전관리패키지사업 등이 지역 상 권의 활력 회복과 상생경제 기반 조

>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고 창전통시장이 군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함께 시장 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전통시 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 >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청-부안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부안군청은 30일 부안소방서와 함께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인명 대피 등 비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합 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부안소방서 와 공동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훈련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 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더불어, 이번 훈련에 함께한 부안초 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은 군청 직원 다"고 강조했다. 들과 함께 직접 대피훈련 등에 참여함

으로써,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요령과 대처 방법을 체 득하게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청사는 군민 이날 훈련은 군청사 내 화재 등 재난 누구나 찾는 공간이기에 안전 관리에 발생 시를 대비한 전 직원의 신속한 초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미 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확산 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군민 안전 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안군을 만들겠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11월 3~7일까지 여성회관 강사 공개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회관은 우수한 실력과 책임감이 강한 강사를 선발하기 위 해 2026년도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강사 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4개 과정 35개 과목으로, 취 미·교양분야에 홈패션 등 16개 과목, 건강 분야에 요가 등 6개 과목, 인문교양분야에 생활영어 등 5개과목, 야간 프로그램으로 난타 등 8개 과목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이며, 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김제시 여성회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 "다양한 분야 의 우수한 강사진이 참여해 시민들이 폭넓 은 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6년도 여성회관 강사 공개모집에 수강 생과의 소통 친화력이 우수하고 실력과 책 임감이 있는 많은 인재들이 참여해 주길 바 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박후진 씨, 전북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부안군은 상서면에 거주하는 귀촌인 박 후진씨(50)가 지난 24일 열린 '2025 전북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에서 성장해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 온 박씨는 인생의 후반기를 새로운 환경에 서 보내기 위해 귀촌을 결심했다. 2019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며 본격적인 농촌생활을 시작한 그는 각종 교육에 참여 하며 귀촌을 준비해왔다.

초기에는 주택 확보와 지역 적응의 어려 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활동가로 안정적 으로 정착했다.

현재 박 씨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 농촌활동 모델을 실천하고 있으며, 상서 면 우덕마을 사무장과 부안군 농촌활동가 로 활동 중이다. 그는 "지역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고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행 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상생형 귀촌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란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 해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들을 예비 귀농귀 촌인에게 널리 전파하고, 부안으로 귀농·귀 촌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희망 의 메시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보호대상아동 위한 업무 협약

고창군이 지난 29일 초당대학교 사회복 지상담학과(학과장 정경은)와 보호대상아 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보호대상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기술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 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립 영 역별 맞춤형 멘토링, 자립준비청년 대상 진 로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지역사 회 현장에 적용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멘토 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실 천 중심의 복지협력모델이 구축되길 바란 다"고 전했다.

유정현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협 약은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유 관기관과 협력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 농산물, 수도권 소비자 사로잡아

군,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서 판촉 옥광밤·눈꽃복숭아시식'호응'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상승 기대

순창군은 3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 센터에서 '순창 옥광밤·눈꽃복숭아' 홍 보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수도권 소비 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 별화된 품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 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한 가운 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조 합장, 농협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순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나와서 신기하다", "순창 농산물은 정 알리는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장에서는 옥광밤과 눈꽃복숭아 를 활용한 시식 행사가 진행되어 소비 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복숭아와 달 밤떡, 건고추, 생강 등으로 구성된 '순 창의 맛'패키지가 방문객들에게 증정 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순창군은 3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옥광밤‧눈꽃복숭아' 홍보 판촉행사 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만 볼 수 있었던 복숭아가 가을에 다시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말 맛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반응 을 보이며, 순창산 농산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행사장에는 순창 농산물을 홍 보하는 대형 현수막과 X배너가 설치되 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으며, 현장 시식과 설명을 통해 소비자와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여름에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순창 농산물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는 순 창의 우수 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 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 리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가 만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순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공유하고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미래형 스마트 선진행정 모범 종이 사용 감축 탄소중립 실현 남원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 애받지 않는 업무 체계 구축이 가

남원시,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효율 극대화'

격적으로 추진해 온 '종이 없는 능해졌으며, 종이 자료 준비에 소 (paperless) 스마트 회의시스템'이 탄소중립 실천과 행정 효율성 극 있게 돼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 대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미래형 스마트 선진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년 동안 종이 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문서 위주 회의방식을 탈피하여 테블릿 PC를 활용, 매달 평균 20회 정도의 각종 회의 및 보고회를 진 행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스마트 회의시스템에 했다.

확인, 논의 내용을 디지털로 즉시 기록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 요되던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또한 종이 사용 감축을 통해 탄 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 회 의 운영은 단순한 회의방식의 변 화가 아니라 남원시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 표명이자 스마트 행정 회의 참석자들은 태블릿을 통해 도입의 디지털 혁신사례"라고 말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책마을 가을 감성축제 '브런치페스타'

내달 1일 복합문화체험축제 개최 '샌드위치 쿠킹클래스' 큰 관심

완주군은 오는 11월 1일 완주문화 재단(상임이사 정철우)과 함께 '2025 완주 스테이삼례 브런치 페스타'를 삼 례책마을 일대에서 개최한다.

'브런치 페스타'는 전북도 명품관광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은 주 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로컬형 문화행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오느른' 최별 사로 이번 페스타를 기획했다.

치, 북토크,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다양한 전

시가 진행되며, 완주의 로컬푸드를 기 반으로 한 브런치 메뉴와 체험형 프 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완주 로컬 식 재료를 활용해 브런치를 만드는 '샌드 위치 쿠킹클래스'는 정원 24명 모집 에 80여 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 MBC PD이 대표 초청 토크쇼, 레트로 뮤직 타임, 행사 당일 삼례책마을 일대는 브런 버스킹, 플리마켓 및 포토존 운영 등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30일 '술동!이어로' 아트상품 물시 기념 및 마음은 콩밭' 생 태놀이터 개장 행사를 열었다. <사진=남원시>

남원김병종미술관, 생태놀이터 개장·ESG 협약

순창 적성면 일광사, 어르신 효도 밥상 공양 행사

시-전북소방본부 불용제복 활용 등 자연 친화적 재료를 활용한 놀이 아트상품 출시·생명존중 MOU

전 10시 '출동! 히어로' 아트상품 출시 용 제복의 친환경적 새활용을 통한 기념 및 '마음은 콩밭' 생태놀이터 개 ESG 가치 실현과 안전의식 제고, 문 장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장과 전북소 구축을 목표로 체결됐다. 방본부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으 로 제작한 '출동! 히어로' ESG 아트상 로' 아트상품은 김병종 화백의 생명철 품 출시를 기념하고, 생명존중 문화 학을 상징하는 '화홍산수' 작품을 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티브로 남원시 BI를 활용해 제작됐다.

이어 어린이들이 김병종 화백의 생 소방관의 불용 제복을 활용했다. 명 철학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행됐다. 생태놀이터는 나무, 물, 흙 다.

시설과 생태 학습 공간으로 구성됐다.

남원시와 전북소방본부가 함께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30일 오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업무협약'은 불 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 협약의 첫 번째 결실인 '출동! 히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해

또한 '로보카폴리'의 안전과 생명 '마음은 콩밭'생태놀이터 개장식도 존중을 주제로 한 특별공연이 이어졌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순창경찰서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순창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칠 계 획이다. 특히 군의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 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청년 취업 돌파구 'NCS반' 가동

서류전형~면접 단계별 맞춤 컨설팅 전문교육기관운영취업 역량강화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 력표준(NCS)반'을 11월부터 운영한다.

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지원할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이다.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준비에 어려움 이다. 내년도 2월에는 사업 결과에 대

들은 관련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아 체 계적인 학습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화를 위해 '청년취업지원 국가직무능 로 진행되며, 우석대학교에서 실시된 다.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을 맡아 서류 군은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에 전형부터 필기, 면접까지 단계별 맞춤 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 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장 내에서나 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청년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도 효율적으로

군은 이달 말부터 수강생을 모집한 현재 청년층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 뒤 3개월간 NCS반을 본격 운영할 계획

을 겪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청년 한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청년 취업지 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 이번 교육은 완주군민 40명을 대상으 다. 관련 문의는 전화(063-290-1940) 로 하면 된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NCS 기반 채용 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NCS반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실 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청년마루 성과공유회·청년네트워킹 데이 개최

남원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 마루'의 한 해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 청년기업 우수사례 발표 △청년기업 하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 제품전시 △원데이클레스 등 체험부스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 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2025 남원 청 운영 △청년공감 토크콘서트(게스트: 고, 남원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 년마루 성과공유회&청년네트워킹 데 래퍼 행주) △청년예술 공연 △청년 네 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11월 1일 남원 아트센터에서 개 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

로 추진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되돌 공감 콘서트에는 쇼미더머니6 우승자 아보고,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 인 래퍼 행주가 출연해 도전과 전환의 그램 및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며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자리로 마련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메세지를 전 할 수 있다.

'지역 청년 도전과 성장' 주제 축제 됐다. 특히 청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달할 예정이다. '남원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주제로 열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청년 린 축제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청년마루 성과보고 △ 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 이번 행사는 남원 청년마루를 중심으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

마루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안정 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이번 행사는 남원시 청년 및 시민 누 어 있으며, 현장 참여 이벤트와 포토존 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신청 없이 현장 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자세한 일정은 남원청년마루 인스타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통합돌봄사업 앞두고 민·관 머리 맞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포럼회의 정부 정책 방향·현실적 과제 공유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 가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 고 완주형 통합돌봄정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완주군 소셜굿즈센터에서 '2025년 완 주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포럼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사업에 대비해 완주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건 완주군의회 의원, 임평화 사회복 비롯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등 총 10 있는 의견을 나눴다. 여 명이 참석했다.

으로 △정부 통합돌봄정책 방향 안내 다양한 복지서비스 아이디어가 도출되 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완주형 통합돌봄정책 마 련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완주군>

△2026년 완주군 통합돌봄정책 추진 길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젠다 포럼 정책위원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 회 위원인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심 은 완주군 복지현장의 현실적 과제를 주군, 완주군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 공유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이 함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협의회장, 완주군 관련부서 팀장을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완주군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돌

임평화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완 택을 제공할 수 있는 '완주형 통합돌봄 회의는 임평화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 주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모델 마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

한편, 아젠다 포럼 정책위원회는 완 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 /완주=김명곤기자 200여명 초청 삼계탕 대접

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 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효도 밥상 공 기회를 제공했다. 양 행사'를 열었다.

로 부임한 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소속 사찰로 2014년에는 목조관음보 자비 나눔을 지속해오고자 결심했다" 살좌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 고 전했다.

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 을 지닌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월 23일에는 일광사 앞 적성강 교각

주변에서 '생명 존중 방생 축원행사' 를 개최해 생명의 소중함을 나눴으며, 전통사찰 일광사(주지 선동 스님) 5월 5일에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 는 지난 29일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신날 봉축행사'를 열어 군민, 불자, 탐 방객들에게 순창 불교문화를 향유할

한편, 일광사는 일제강점기 김세현 선동 스님은 "수년 전 일광사 주지 스님에 의해 창건된 한국불교태고종 유산 제229호로 지정됐고, 2017년에 일광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군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불 제118호로 지정받는 등 역사와 전통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 자치공간 우수사례 주목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지난 29일 완 주군청소년센터 '고래'를 방문해 청소년 주 도형 청소년공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

이번 벤치마킹에는 전북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장학사, 학교 교사, 마을공동체 교사 등 11명이 참여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공 간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봤다.

이날 '고래' 8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임원 7 명이 직접 시설을 안내하며 공간의 의미와 활동을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다큐멘터리 〈고래,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를 시청하 며 고래의 탄생 배경, 청소년 주도의 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영상 시청 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자유토 론 시간에서 위원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운 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 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 고, 성인 지도자들이 뒤에서 조력하는 구조 가 인상적이었다"며 "학교 안에서도 이런 자율성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래는 청소년이 기 획부터 평가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 치 기반형 청소년공간이다"며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안숙선명창의여**정** 전통음악 '가을밤 소리여행'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판소리의 고장 남원시에서는 우리 전통 소리의 깊이를 느 낄 수 있는 가을밤 소리여행 공연이 안숙선 명창의 여정 야외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열 린다.

판소리와 국악의 멋과 흥을 보존하고 전 승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예술인들이 출연 하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멋 진 공연으로 10월 가을밤을 아름다운 우리 의 소리로 수 놓으려고 한다.

이번 '가을밤 소리여행'에서는 모듬북의 아퀴팀, 컨템포러리 댄스그룹 모던테이블, 판소리 서의철, 고수 전계열 등 젊은 예술 인들의 무대로 안숙선명창의 여정 야외무 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의 보 유자인 안숙선국창은 "청명한 가을 밤, 국 악계 선·후배님들의 멋진 무대를 응원하고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 다"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한다고

/남원=정하복 기자

상습체납차량 불시 집중 단속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자동차세 및 각 종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분을 즉시 시행하며,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준법의식 제

임실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임실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 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하 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 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900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 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 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 청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 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 여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 스나 우편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 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 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 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청원경찰 25명 대상 직무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강의 실에서 청원경찰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 혔다.

이번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 라 매월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정기 교육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민원 응대 서 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청원경찰법 주요 제도 △ 직무 수행 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 △민원인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에서는 실제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대응, 위기 상황별 매뉴얼 숙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아울러 군민과 공무원을 모두 보호하는 '청사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인식과 친절한 공직 문화 정착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경탁 청원경찰반장은 "앞으로도 청원 경찰 모두가 군민과 직원이 안심할 수 있 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 장터 축제' 성황리 성료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 장터 축제'가 30일 장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2단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 민들이 기획과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한 주민 주도형 지역축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 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무풍면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이 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역 내 동 아리팀들이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 해 준비한 풍물놀이, 색소폰·통기타 공연, 동화구연, 시 낭송, 난타 및 트로트 합창 공 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전 시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사과 등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 다.

이 자리에서 이대석 무풍면 주민위원장 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체 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룬다는 데 이번 축제의 목적이 있다"라 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키운 주민 역량이 무풍면, 나아가 무주군 발전을 주도 하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 다.

한편, 무주군 적상면에서는 31일 오색단 풍이야기센터 앞마당에서 '제2회 적상 오 색 장날' 행사(10:30~)가 펼쳐진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진안고원 스마트팜' 착공

500여억원사업비투입 2030년까지 단계적 조성

진안군이 농업의 백년대계를 향한 힘 찬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30일 마령면 평지리 일원에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착공식을 성 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 성 진안군수,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 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농 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단지의 본격 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착공식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청 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진안군 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총 11.9ha 규모에 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 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은 기반 조성→에너지 시설 구 경을 조성하게 된다. 축→스마트팜 하우스 시설 구축→지원



진안군은 30일 마령면 평지리 일원에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착공식을 성황리에

센터 건립 순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최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 창업농 예정이다. 이는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업 단지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단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기술을 배우 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

진안군은 이번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종적으로 교육·실습형 스마트팜 1동과 인구를 유치해 지역활력 제고를 기대 소득·임대형 스마트팜 4동이 들어설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농 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 복의 중요한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확보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2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군은 30일 ㈜수푸름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지역 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임대주택 28세대를 확보했다 기준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고 밝혔다.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총 84세대 중

택으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 받을 경우, 5년간 연 대출이자 최대 5%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를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입주 후 출산 다. 협약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 한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2년을 더해 대 전형이 신설되며, 오는 11월 중 대상 모집부터 심사, 선정, 지원까지 본격적 ㈜수푸름 측은 2027년 공급 예정인 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 28세대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 부부가 제1, 2금융권을 통해 임대보증

로 했으며, 56세대는 일반공급 임대주 급 한도 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총 7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일반 임대주택 모집은 ㈜수푸 름 측이 직접 12월 중 실시하며, 모든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인 ㈜수푸름이 담당한다.

> >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농어촌버스 광역환승 제도 시행

광역환승 대상자는 진안군 관내 주

군 경계 넘어 무주까지 환승

광역(무주)환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광역환승 확대

주까지 환승이 가능해졌다.

진안군은 내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통카드를 이용하여 1회 결제하면 60분 권의 확장과 지역 상생으로 이어질 전 이내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 망이다. 그동안 진안군의 '농어촌버스 무료 로 환승할 경우 관내 최대 2회, 무주에 환승제도'는 관내 노선에 한정하여 운 서 최대 1회까지 적용되어, 총 3회까지 주를 오가는 관내 주민은 "무주까지 환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를 통해 군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인 무 행복콜택시는 환승 대상에서 제외되어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운영한다.

이번 광역환승 확대 시행으로써 군민 민이며, 버스 이용자는 최초 탑승 시 교 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어 생활

> 특히, 통근이나 통학 등으로 매일 무 승할 수 있어 버스비와 시간이 절약될

> >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옥정호, 국정감사 동부권 성공모델 사업 극찬

"대한민국가장좋은곳"호평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옥정호 가 국정감사에서 대박 관광지로 소개 되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 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동부권 균형발전사 업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 서 임실 옥정호 관광단지를 크게 호평,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수많은 관광 객들의 모습과 붕어섬 생태공원에 활 짝 핀 꽃, 아름다운 경관 등이 담긴 PPT 자료를 내보이며 "옥정호 관광단지가 대박이다. 개장한 지 2년만에 132만명 이 방문하는 대박을 터뜨렸다"며 "굉장 한 좋은 정책으로 임실군을 대한민국 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리는 데 역할 을 한 것 같다"고 말해 경직된 국감장 분위기를 순간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좋은 곳이다. 꼭 한 번 다녀와 보시라"고 방문을 권유하 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정현 의원 이다. 특히, 운암면 일원에 추진한 '옥 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 이"나도 한번 가봤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옥정호를 광역단체의 태공원 조성 및 보완사업'이 핵심 성과 특별한 정책과 기초단체의 노력이 병 로 꼽힌다.옥정호 출렁다리는 총사업



하며, 동부권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는 입장을 전했다.

광단지를 언급하면서 임실군의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은 기초단체의 좋은 정 킬계획이다. 책으로 주목을 끌었다.

호 생태관광개발사업은 취임 초인 지 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 난 2015년부터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 환으로 옥정호 권역을 생태·체험형 관 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동부권 발 광지로 조성, 크게 빛을 보고 있는 사업 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붕어섬 생 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연과 사람이 행되어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로 소개 비 120억원을 투입해 2020년 3월 착공,

2022년 10월 준공된 대규모 관광 인프 라이다.

군은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수변 관 타지역 국회의원이 임실군 옥정호 관 광자원과 붕어섬의 생태·휴식형 콘텐 츠를 결합해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

심 민 군수는 "국정감사에서 성공적 3선 군수인 심 민 군수의 역작인 옥정 인 관광사업으로 소개되어, 지난 11년 아 감회가 남다르다"며 "옥정호 출렁 전사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관광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캣 맛보세요!"

무주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판촉 행사 진행

무주군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무주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에서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캣' 판 촉 행사를 연다.

정이다, 2kg 1박스가 7천 원으로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 있다.

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곽동열 무주농협장, 양시춘 무주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범 석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등 20 여 명이 함께 무주 반딧불 샤인머 스캣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비 촉진 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관 계자는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은 시식 행사를 겸한 이번 행사에는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감, 월등한 총 2천 박스 4톤 물량이 공급될 예 품질로 국내외에서 모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이번 판촉 행사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무주산 샤인머 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스캣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 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황인홍 무 가들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되 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

12월 31일까지 연장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역 소비 촉 진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 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할인 판 매'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다.

군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진행 된 20% 특별할인 행사에서 총 57억 일하다. 원의 상품권을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 원)보다 2.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 신규 가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군 입자 수가 1,192명으로 전년 동기(339 명) 대비 3.5배 증가하며 상품권 이용 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할인기간을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카드형 상품 다. 권 발급처를 기존 농협에서 우체국까

지 확대해 군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

특별할인 기간 동안 지류형과 카드 형 상품권 모두 15% 할인을 적용하며, 특히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카드형 상 품권에 한해 20% 할인이 제공된다. 구 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기존과 동

전춘성 진안군수는 "특별할인 연장 과 함께 우체국에서도 손쉽게 카드형 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활용해 지역 상권 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연말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20일~12월 15일 산불 조심 기간

임실군이 당초 1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를 지난 20일부터 앞당겨 가동해 산불

과 강풍 등 불리한 환경에 대응하고,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산불 발생 가능 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동 진화를 위하여 군 산림녹지과 및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 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지난 20일 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57일간으로 산불전문진화대 46명과 산불감시원 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8명을 조기 배치하여 주요 산림 인 이는 본격적으로 건조한 기상 여건 접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 는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 울인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마을 방송과 현 수막,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정책 특강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정책 용이 공유됐다. 특강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역 내 돌봄 지원기관 시범사업(기술지원형)에 선정된 데에 관계자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실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력과 협업체계 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 원이 초청돼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 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했다. 강연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의

장수군은 군민회관에서 내년 3월 시 정책 방향 및 시범사업 운영 경과, 향 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후 준비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내

> 군은 지난 9월 의료-돌봄 통합지원 이어 이번 특강을 통해 내년도 사업 행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을 통해 장수군은 중앙정 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 중심 이날 강연에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 의 포용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 무주군에 200만원 기탁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가 30일 무주군 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청정바다젓갈'은 부안군 곰소항에서 각종 젓 갈류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부 터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새우젓을 납품해 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매년 무주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2023년 1백만 원, 2024년 1백만 원)해 왔다.

안병관 대표는 "그동안 무주에서 받은 사랑 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는 '고향사랑 무주사랑' 의 마음을 2배로 키웠다"라며 "무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만큼, 작은 힘이나마 늘 보 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 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 마령면 새마을회·활력센터, 제철음식 나눔행사 진행

진안군 마령면 새마을회(협의회장 이학종, 부녀회장 조은행)와 마령활력센터(이사장 정 환오)는 함께 지난 29일 지역 주민들에게 영양 가득한 제철요리를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마령면 새마을회와 마령활력센 터 제철요리팀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로 마령면에서 재배하고 제철에 수확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독거 어르신과 취 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 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령면 내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눔으로써,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 들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마령면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확산시 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계면, 김동신 의병장 제9회 추모제 봉행

의병 정신 계승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29일 장 행됐다. 계면 명덕리 김동신 의병장 묘소 에서 '김동신 의병장 제례봉행 및 추모사와 제례봉행 순으로 진행됐 제9회 추모제'를 엄숙하게 거행했 으며,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 초 다고 밝혔다.

김동신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 를 되새겼다. 리고,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 했다. (사)김동신의병장 추모사업 에 조장호 장계면장, 아헌관에 오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재영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종

헌관에 송병주 김동신의병장추모 사업회장이 각각 맡아 제례가 진

추모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에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며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 관계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김동 후손, 주민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 신 의병장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들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의 참된 의미

이번 추모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의병 정신을 주관으로 마련된 추모제의 초헌관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29일(음력 9월 9일) 장계면 명덕리 김동신 의병장 묘소에서 김동신 의 병장 제례봉행 및 제9회 추모제'를 엄숙하게 거행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학생들과 함께 전북 천리길 환경 정화 플로깅 실시

김제 지평선중 학생들. 천리길 걸으며 환경보호 실천

전북자치도는 30일 군산시 선유 도 일원에서 '2025 김제 지평선중 전북 천리길 플로깅'행사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최·주관한 것으로, 전북 천리길의 인지도를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신체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 속 가능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책임 감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 지평선중학교 학생과 교

사 등 총 41명이 참여하여, 전북 천 리길 군산시 '고군산길 구간'(6km, 선유도항~몽돌 해변)을 걸으며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주 진 캔과 유리병을 활용한 새활용 (Upcycling)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

/장정철 기자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축제 개최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 회관 앞에서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진로 여정을 경험했다. 진로 탐색이 어우러진 진로체험축 제 '진로무비 어드벤처'를 열어 호 로 청소년들이 진로와 삶을 자연 응을 얻었다.

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관 닌 탐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주제로 구 싶었고, 앞으로도 체험 중심 프로 성된 15개의 진로체험 부스를 통 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내 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며 진 면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를 탐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내 인생 터장 박현정)가 최근 완주군문예 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박현정 센터장은 "영화를 매개 스럽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됐 이번 행사는 완주아동권리영화 길 바란다"며 "진로는 정답이 아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풍경채 바움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기부

익산시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 는 장으로 진행됐다. 로 모은 성금을 전하며 지역에 온 기를 더했다.

바움 어린이집(원장 김금주)'은 30 자 수익금 전액을 기탁했다. 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아동들 체험을 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

바자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풍경채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김금주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을 위해 200만 원을 익산시에 기 나눔 활동에 참여해 이웃을 생각 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6일 하는 마음을 배웠다"며 "복지시설 원아들이 직접 참여한 '풍경채 바 아동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 되길 움 어린이집 바자회'를 통해 마련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아동을 위 됐다.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고수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수리' 사업 실시

고창군 고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 원장 유성룡, 서학용)가 '사랑의 집수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지붕에서 누수가 있 었고, 대문 역시 심하게 녹이 슬어 안전과 미 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힘을 모아 낡은 지붕을 보수하고 누수를 완벽히 차 단했으며, 녹슨 대문은 말끔하게 페인트칠하 여 새것처럼 단장했다.

유성룡 고수면장은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 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신 협의체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 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고수면을 만드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다음세대학교·새마을부녀회 저소득 35가구에 반찬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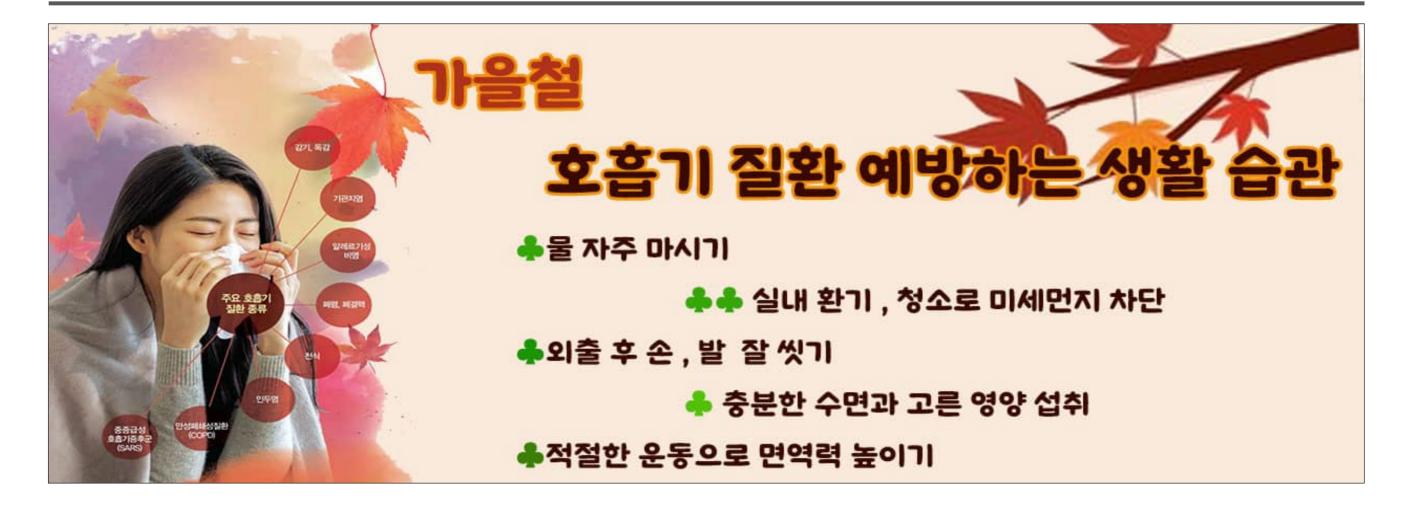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 는 군산 다문화 대안학교 '다음세대학교'(교장 오혜미)와 군산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영자)가 관내 저소득가정 35세대에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육볶음을 포함한 4가지 찬으로 구성된 반찬 세트로, 다음세대학교 학 생 및 교직원 10여 명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조리한 후 각 가정 을 방문해 전달했다.

오혜미 다음세대학교 교장은"학생들이 지 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 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이번을 계기로 학 교 밖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학생들의 자발적인 봉 사활동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선한 영향력 을 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며"앞으 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복지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JBT)

〈一事一言〉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고상만

공감뉴스 1전복음 세계로

인권운동가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 날' 이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경 찰 창설 80년'을 맞이한다는 의미 가 더해져 더욱 거창한 축하 행 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말 국민 의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 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1998년이었다. 전국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만 3년을 일하다가 그해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자리 를 옮겼다. 그리고 그 해 10월 21 일, 나는 '경찰의 날'을 맞아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대표 적인 인권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했다. 피고발인은 당시 경찰청장 을 비롯하여 약 20여 명의 경찰 관들이었다. 이 고발장은 예상보 다 파급력이 대단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최초의 정 권교체를 이루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그 때에, 경찰 역시 새로 운 출발을 선언하며 '경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 런 때에 인권단체들이 경찰청장 등을 대거 고발하니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이다. 그야말로 잔 칫날에 재를 뿌려도 단단히 뿌린 것이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직권남 용'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탈옥범 신창원을 검거한다는 미명 하에 권총을 남용하여 큰 문제를 야기 하고 있었다. 신창원은 1989년 3 월 28일 강도살인죄로 무기수 선 고를 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

1997년 1월 20일 탈옥했다. 이후 1999년 7월 16일 체포될 때까지 그는 907일간 경찰을 농락하며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자 2년 6개월 탈옥 기간 중 13번이나 검거 기회를 놓친 경찰 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다. 결국 경찰이 무리수를 저질렀다. 신창원 검거를 위해 총기 사용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하지 만 신창원 검거 대신 늘어난 것은 국민의 피해였다. 그중에는 경찰 이 쏜 총이 하교길 여고생의 허벅 지를 관통시킨 사건도 있었다. 신 창원도 아니고 도망치는 단순 절 도범을 검거한다며 쏜 총알이었 다. 술 마시고 자기 집에서 행패 를 부리던 가장이 총에 맞고 숨지 기도 했다.

그 중 압권은 인파로 가득찬 백 화점 안으로 도망간 절도범을 잡 는다며 경찰이 쫒아 들어가 총기 를 난사한 사건이었다. 경찰의 총 기 남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 었다. '경찰의 날'에 경찰을 고발 한 이유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 응이 더 빨리 왔다. 고발장을 제 출한 그날 밤이었다. 경찰청 최고 위층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경찰 청사에서 조용히 면담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면담에서 경찰 수뢰부는 그동 안의 총기 남용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다. 인권단체가 총기 사용 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면 담 과정에서 내가 당부했던 말은 "총기를 사용해야 할 때와 그렇 지 않을 때를 경찰이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시뮬레

이션 훈련을 도입하라"는 것이었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 의 경찰 장구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판단하 지 못하여 벌어진 비극은 너무나 참혹했다. 지난 2001년 8월 1일 대전에서 발생했던 '세 모녀 인 질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날 새벽에 침입한 강도는 자신의 손 에 칼을 동여맨 채 30대의 아이 엄마 목을 겨누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강도는 그렇 게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

린 두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 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강도를 흥분시킨 것은 출동 한 경찰이었다. 대치 중인 상황 에서 경찰은 인질범이 들으라며 "야. 너 찌를 수 있어? 찌르려면 찔러봐.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뭐 하냐. 인마"라며 도발했다.

결국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경찰이 칼 들고 있는 강도의 손을 제압하려고 각목으로 내리친 것 이다. 하지만 삭은 각목은 그대로 부러졌고 그 순간 칼은 아이 엄마 의 목을 파고 들었다. 결국 아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이 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았다. 내 가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 의 무능한 순간'이었다.

세월은 또 흘러 2021년 11월 15 일,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 등을 겪던 건물에서 경찰의 잘못 된 대응으로 부인은 범인에게 목

을 찔렸고 남편과 딸 역시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다. 이때 신고를 받 고 출동한 50대 남경과 20대 여 경이 피해자를 구하는 대신 '솟구 치는 피를 보고 도망을 쳐' 국민 적 비난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후 두 경찰은 해임되었고 2024년 직 무 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무능으로 벌어진 또 하나

의 비극이었다.

이처럼 총을 쏴야 할 때와 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찰, 강력범을 제압하기 위해 어 떤 무기를 사용해야 할지 분별하 아이 엄마는 함께 인질이 된 어 지 못하는 경찰, 위기 상황 대처 법을 익히지 못한 경찰로 인해 많 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경 찰 창설 80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이 어 2025년 검찰청 폐지 법안 통 과로 당장 내년부터 지금보다 훨 씬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 다. 그 늘어난 권한만큼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능해질 수 있

>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북, 인공태양 유치해 미래 에너지 주권 확보하자

전북자치도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좌 우할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에 뛰어들 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후보지로 내 세운 이번 도전은, 21세기 에너지 주권 과 국가 기술력을 가늠할 대형 프로젝

1조2천억이 투입되는 '핵융합 핵심기 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에 너지 혁신의 시험대이자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핵융합 기술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 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전력을 생산하 는 이른바 '인공태양' 기술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나 고준위 방 사성 폐기물도 없다. 원자력의 안정성을 뛰어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꼽 히는 이유다.

새만금은 후보지로서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50만㎡ 이상의 단일 부지 확 보가 가능하고, 6차선 진입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2027년 공사 완료 시점이 사업 착 수 일정과도 일치해 행정·물리적 여건 모두 이상적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개 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연 구 인력 이동과 정주 환경 개선에 큰 도 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자리 잡은 연구 생태계다. 군산의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 소는 2012년부터 플라즈마 원천기술 연 구와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 연구소 는 핵융합 연구시설과의 기능적 연계성 이 높고 기술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 가종합실증연구단지, RE100 산단 등도 인접해 있어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상 용화 가능성 역시 높다. 새만금이 '에너 지 혁신 허브'로 도약할 충분한 토대가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유치가 확정되면 건립과 운영 과정에 서 350명 이상의 고급 연구 인력이 직 접 고용되고 관련 전기·전자·초전도 분 야 기업 및 스타트업이 대거 유입돼 지 역 산업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R&D특구 트라이앵글'--새만금의 미래에너지 연 구거점, 전주·완주의 농생명 융합 거점, 정읍의 융복합 혁신 거점—이 완성되면, 전북은 국가 혁신지도의 핵심축으로 부 상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력과 공감대다. 전 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 사 등과 유치대응TF를 꾸려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 결의대회 를 통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진정한 승 부는 지역의 단합된 의지에 달려 있다. 도민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이벤트를 통 해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시 설이 아니다. 그것은 전북의 미래산업 지도에 빛을 더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탱할 새로운 태양을 띄우는 일 이다. 인류의 에너지 혁명을 향한 이 거 대한 도전에 새만금이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뜻과 국가 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새만 금에 떠오를 인공태양이 곧 전북의 미래 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Ⅰ독자광장Ⅰ

기초질서, 공동체를 위한 약속



동체 신뢰 회복'을 목 표로 교통 질서, 일상

생활 주변, 서민 경제

여하기 위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위한 '3대 기초질서(△교통 △생 활 △서민경제) 확립 대책'을 추 진 중에 있습니다.

쇼·악성리뷰, 정상적인 영업을 방 해,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이어지 해하는 주취폭력·무전취식 등 행 는 주취 범죄는 업주에게는 정신 위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경제질 적 충격은 물론 장기적인 영업피 서 확립' 활동은, 정상적으로 일하 해로 연결됩니다. 고, 성실하게 장사하려는 소상공

문

화

재

열

전

경 찰 청 보호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다. 에서는 '공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활동이 라고 생각합니다.

노쇼, 악성리뷰 협박, 고의적 환 불 요구 등은 이제 단순한 민폐가 아닌 서민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 상공인들은 단 한번의 피해로도 생활에서의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지명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 일상 러한 행위는 사실상 영업방해죄, 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 업무방해죄, 공갈죄, 사기죄 등으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생계 침해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 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괴롭하는 노 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영업 방

이러한 범죄는 '술을 마셨다.'는 인과 자영업자들의 땀과 시간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

우리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작 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이 접수되면 예약자 추적과 통신 자료 확보, 피해 규모 분석 등을 통해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를 철 저히 수사해, 악의적·반복적 행 위는 여죄 등 고의성을 입증한 후 구속 수사 등을 검토하는 등 단호 히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 또한, 주취 폭력행위 역시 기초 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방중 심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

> 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 인 예방을 유도하는 공동체 치안 는 인식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 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사회는 제복 을 입은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완 성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 은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단호 가 있을 때, 비로소 모두의 생계 를 지키는 정의가 실현됩니다.

> 기초질서는 법전이 아니라, 현 장에 있는 시민의 삶에서 시작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는 단속이 아니라 신 뢰와 책임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곧, 이 질서를 훼 손하는 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소상공인과 노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침해하는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고, '법이 약자를 지킨다.' 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아름

오늘의시

연륜(年輪) / 김기림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나문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덜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시인 약력: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동북제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31년 '신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돋치면'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 의 이론가이자 모더니즘 시론을 실제 창작에 실험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풍 속', '바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저서로 '시론', '시의 이해', '문장론 신강' 등이 있 다. 한국전쟁때 납북돼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흥복사대웅전목조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2000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김제시 흥사동 263번지



유엔 세계관광기구, '무존무족읍'에 반하다!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지난 17일 중국 후저우시에 '무주군 무주읍'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 을(Best Tourism Villages)'에 선정된 것.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이날 개최된 '2025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세계 52곳의 마을을 시상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반열에 선 '무주군 무주읍'은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이다. 〈편집자 주〉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인정하고 세계인들이 즐 겨 찾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지역문화 자 원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로, 2021년부터 유엔 세계관광기 구가 해마다 문화 및 자연 자원, 경제·사회·환경 적 지속 가능성, 관광 개발 및 가치시슬 통합 등 의 항목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65개국 270개 마을이 신청했으 며 이 중 52곳의 마을이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무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이름을 올렸다. '무주군 무 주읍'은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으며 2월에 국내 후보지 8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의 주인공이 됐다.

※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_전 세계 관 광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촉진을 목적으로 1975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본부는 스페 인 마드리드에 위치해 있다.

'무주군 무주읍'에 쏠린 눈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무주군 무주읍'이 '인간 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주읍은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중심지로서 △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을 품은 청정지역, △보물 한풍루와 무주향교 등이 대변하는 전통문화의 고장, △무주반딧불축 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활기를 불어넣는 환경생 태문화휴양지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 곤충 반딧불이 가 서식하는 국내 최고의 힐링 여행지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축제와 여 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 가했다.

현재 시행 중인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 사업'을 비롯해 '태권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등 관광 개발 사업들 역시, 세계적인 관광마을의 품격을 높일 동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무주 마실 길(금강마실길, 금강맘새김길), 소이나루공원, 지 남공원, 공립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무주상 상반디숲(복합문화시설) 등의 생활·문화자원이 '삶터'로서도 충분한 무주읍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명성은 무주군 무주 읍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 되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 사용과 공 를 얻을 수 있다.



인터뷰

황인홍 무주군수

"자연특별시 무주의 특별함이 세계를 사로잡았다!"



과 역사·문화자원, 우수성, 그리고 주 무주를 유엔 세계

만들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 고 덧붙였다.

"무주군 무주읍 을 선정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글로벌 의 아름다운 자연 관광 시장에서 대한민국 지역 관광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친환경 생태관광의 이라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만의 고유한 관광 모델을 구축해 민 여러분의 애향 지역소멸 위기 또한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심이 자연특별시 모범답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광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 관광기구가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무주다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 망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공동체 발전 모델로 주목받는 만큼 문화유산 보존과 친 환경 관광 촉진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

더불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네트워크' 내에 서의 시너지 효과와 후속 지원이 지역 관광 브랜 드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 주군은 무주읍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유엔 세계관 식 홍보 페이지 제작이 가능해 국제적인 인지도 광기구(UN Tourism) 주관 국제행사 유치, Δ최 우수 관광마을 관련 상품의 상설화, △관광 및 지

이는 관광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외국인 관 역개발 관련 국내외 공모사업 참여 등 연계 사업 발굴과 대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이 동력 무주군은 무주읍의 자연과 전통문화, 관광자원 을 토대로 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다.

>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청 정지역이자 △태권도원을 품은 세계 태권도 성 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문화체육관광 부·한국관광공사)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 영화제가 펼쳐지는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이며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동 부산악권 교통의 요충지인 것이다.

동 33경 관광명소화(2024~2026)' '덕유산 산림욕 장(2022~2025)', '둘레길 조성(2021~2025)', '부남 면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2020~2026)' 사업 등 을 통해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군 은 문체부로부터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관광 기반시설 보유 정도, 관광객 방문, 정책적 노력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을 획득하며, 전 국 10대 지역 관광 매력 도시로도 선정된 바 있 다.

※ 반디랜드 • 2023~2026년 4년 연속 한국관 광 100선 선정 • 2021년 대한민국 안심관광지 선 정 • 곤충박물관: 우수박물관 인증 획득 / 태권도 원 • 2023~2026년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 정 •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 2022, 2024~2025년 웰니스 관광지 선정 / 향로산자연휴양 림 & 무주눈꽃 • 2023년 전북형 자연치유 관광지 선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2020~2025)', '구천 정 / 무주반딧불축제 •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 정 우수축제 • 5년 연속 최우수축제 • 5년 연속 명예 문화관광축제 •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 •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선정 2024년 피너클 어워 즈 에코투어리즘축제, 2025년 아시아 친환경축제

/무주=최의호 기자



